

광주시교육청 '푸른새', 美서 '5·18 세계화' 앞장

청소년 20명 구성 5·18 홍보단, 샌프란시스코서 홍보 활동 LA민족학교 방문 교류활동, '님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 등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가 해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등 5월의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이 정선 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사업의 하나다. '5·18 민주화운동 세계화'란 테마에 맞춰 고등학교 20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홍보단 '푸른새'는 샌프란시스코 '피어39'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과 역동적인 K-pop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LA에서 5·18 당시 마지막 수배자였던 윤한봉 선생이 설립한 LA민족학교를 방문했다. 김준 활동가의 '5·18과 민족학교'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5·18 정신 관련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한인타운에서 5·18 플래시몹과 홍보 부스를 운영해 교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또 미국 한인 사회 최고 정치율을 자랑하는 LA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 '문화충격'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인솔교사인 문화중 김보름 교사가 출연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5·18민주화운동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소감,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학생들은 LA총영사관의 초청으로 영사관을 방문했다. 현지 외교관들과 미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단을 만나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밖에도 LA 비버리힐즈, 그리피스 천문대, 할리우드거리 등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 5·18민주화운동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 스탠포드, UCLA대학에 방문해 5·18 캠퍼스공연, 현지 유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푸른새' 단원들은 이곳에서 5·18을 알리고, 유학생들과 대학을 탐방하는 교류에도 참가했다.

학생들은 앞으로 샌버나디노대학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교류 활동을 하게된다. 또 리버사이드의 도산 안창호 기념 동상을 찾아 현화와 목념을 한 후 샌디에고에서 5·18민주화운동 홍보 및 영상 촬영 등을 진행한다.

'푸른새' 단원은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알리게 되면 효과가 클 거 같다"며 "이번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져서 기쁘다"고 밝혔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는 등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뉴욕과 워싱턴 일원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서 학생 20명을 직접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 학생들이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5·18 세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 교육감은 모교인 러트거스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 등을 탐방하면서 학생들의 해외 대학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세계가 인정할

자랑스러운 광주의 유산이다. 우리가 이루어낸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공동체·나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으면 한다. 또 우리 푸른새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으로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제6회 광주건축대전에서 수상한 광주대 건축학전공 학생들. <광주대 제공>

광주대 건축학전공, 건축 공모전 '두각'

광주건축대전서 백승엽 학생 '대상' ...총 9명 입상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건축학전공(5년제) 학생들이 전국규모 건축설계 공모전인 '제6회 광주건축대전'에서 백승엽 학생이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9명이 입상했다.

백승엽(건축학전공 5년)씨는 "좋아하는 어디로 가는걸까요?"라는 작품으로 최고상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의 영예와 상금 7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건축의 형태적 결과가 아닌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리서치와 방법론이 '유점도시'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으로 이해되어 건축적 결과보다는 SNS스페이스라는 개념적인 혁신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유점도시(유점도시)'의 주제를 잘 해석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일반공모전 특선(최석규, 김창민, 김홍범), 입선(오동열, 양지우, 박서연, 김소정), 아이디어 공모전 입선(김현준) 등 광주대 건축학전공 학생 9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성현 교수(학부장·주임교수)는 "올해 건축학

교육인증 5년 획득과 더불어 광주건축대전 대상 수상이라는 경이사를 발판으로, 지역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건축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회 광주건축대전' 전시회는 '제20회 건축도시문화제'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9월 12일 시작돼 오는 24일까지 공모전 입상작들과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으며, 건축도시문화제의 다양한 건축작품들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이번 건축대전은 '유점도시(유점도시)'를 주제로 3개월에 걸쳐 공모전을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 건강한 학교체육문화 만끽

전남도교육청, 장흥서 축제 한마당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장흥군 일원에서 6200여명의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전남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 문화 체험을 통해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한 학교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14일 장흥군 탐진강변 체육공원에서 막을 올린 스포츠 문화 축제는 축하공연과 42개의 체험부스, 초대형 에어바운스 놀이터가 설치돼 참여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구림공업고등학교의 신명나는 풍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댄스 공연과 오케스트라, 밴드 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가 오는 중에도 문화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다채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끽했다.



김대성(맨 왼쪽) 교육감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학생을 격려했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스포츠문화 축제와 함께 장흥 일원에서는 '제17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종목별로 펼쳐졌다.

지역의 예선전을 통과한 23개 종목 734팀 6200여명의 선수들은 3일간 열띤 경기를 치렀다. 이번 대회 종목별 우승팀은 전남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재현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전남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지방대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 'A등급'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Ⅲ유형(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기존에 배정된 예산 28억 5000만원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대

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 1일 ~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조선대는 본 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2023년 5월에 발표한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난 6월부터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미래모빌리티, ▲첨단반도체 산업을 특성과 분야로 선정하고 '광주지역 산업밀착형 하이엔드 정주인재 양성'을 목

표로 설정했다.

특히 ▲자율성과지표를 하이엔드 정주인재 역량, 지식학 교육과정 활성화, 미래혁신 교육방법 확산, 정주인재 산학일체 혁신, 지식학 공생협력 강화 등 5개 지수로 선정하여 정량적으로 도출한 점 ▲교원+직원+학생 결합의 학생케어전담팀 운영으로 학생의 소속감 증대 및 중도탈락률 완화방안을 마련한 점 ▲특성화 정주인재 육성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지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성과분석 및 확산 계획을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전집

시조 선운사 동백꽃
시조 선운사 동백꽃
시조 선운사 동백꽃
시조 선운사 동백꽃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